

杜谷 高應陟의 시에 나타난 志向意識

이구의*

차 례

1. 머리말
2. 杜谷 詩의 生成 背景
3. 시의 要素에서 본 시의 의미
 - 3.1. 잔잔히 울리는 리듬감
 - 3.2. 소슬한 情感의 繪畫性
 - 3.3. 차분한 雰圍氣와 情調
 - 3.4. 冲淡하면서 蕭散한 風格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한평생 학문에 힘쓰며 살다간 두곡 고응척(高應陟: 1531~1605)의 시를 시에 요소에 맞추어 시의 의미와 자아의 지향의식을 고찰한 논문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우리나라 성리학이 가장 왕성할 때였다. 그의 학풍은 경상북도 서북쪽의 지방의 학맥을 잇는다. 그가 태어난 선산과 이사하여 살았던 상주(尙州) 지역의 학맥과 통한다.

두곡 시의 형식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시부(詩賦) 제목의 글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 1/3 이상의 제목이 3글자 이하이다. 이를 통하여 그의 성격이 간단명료하며 아울러 그가 성리학과 실학정신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시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주변 사람들이다. 그 자신이 수학할 때거나 관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그가 시의 제재로 한 것은 자신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었다. 자신이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었던 자연 경관이나 사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용어, 자신이 추구하였던 의식을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넷째 시어에 있어서 그의 시에는 송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나라 어록체(語錄體)나 그 뒤의 백화체(白話體)에 나오는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 내용면에서도 그의 시는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철리적(哲理的)이며, 묘사적(描寫的)이라기보다는 서술적(敘述的)이다.

시의 요소를 통하여 본 그의 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잔잔히 울리는 리듬감이다. 자아와 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 그의 시를 보면 웅장하거나 요란한 리듬감을 지닌 시어(詩語)를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소슬한 정감의 회화성(繪畫性)이다. 그의 시는 차분하여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셋째 차분한 분위기와 정조이다. 그의 시에는 흥분하거나 분위기가 들뜨지 않았다. 넷째 그의 시의 풍격은 충담(冲淡), 소산(蕭散)하다. 이는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외물의 변화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학자의 모습이 그의 시에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그의 지향의식은 도를 추구하는데 있었다.

핵심어 : 철리적(哲理的), 서술적, 리듬, 회화성(繪畫性), 분위기(雰圍氣), 이성적.

1. 머리말

본고는 두곡 고응척의 한시를 시의 요소에 맞추어 고찰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그의 지향의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두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사¹⁾와 시조²⁾를

- 1) 두곡의 가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보, 『高應陟의 <陶山歌>』,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정재호, 『임진왜란과 국문시가』,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강진섭, 『高杜谷의 <陶山歌>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 한국언어문학회, 1966.

강진섭, 『高杜谷의 <陶山歌> 복원에 대하여』, 『어문학』 23, 한국어문학회, 1970.

정익섭, 『16·17세기의 가사문학』,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류해춘, 『임진왜란의 체험과 가사문학의 변모』,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 2) 두곡의 시조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의 가사에 대한 연구 성과보다 많이 축적되었다.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박규홍, 『杜谷時調考』, 『시조문학연구』2, 영남시조문학연구회, 1983. 9.

이영희, 『조선조 嶺南士林派 詩歌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10.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4.

고정희, 『17세기 시조 연구의 쟁점과 그 방법론적 성격』, 『국문학연구』 10, 국문학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의 문집인 『두곡집』(6권 5책)에는 국문학 작품보다는 한문학 작품이 훨씬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한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단 한 편만이 있다. 그것도 문학작품이 아니라 경학에 대한 연구이다.³⁾ 따라서 두곡의 한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의 대본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도 들어 있지 않은 목판본 『두곡집』 6권 5책이다. 이 『두곡집』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시(詩)가 아니라 부(賦)이다. 문집의 대부분이 시를 가장 먼저 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문집에는 부(賦)가 10편 이내 실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두곡의 문집에는 부가 58제(題) 58편(篇)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우선 그의 한시 207제(題) 218수(首)를 현대사에서 말하는 시의 요소에 맞추어 본고를 진행하려 한다. 이어서 시의 요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의 지향의식을 도출하려 한다. 끝으로 한시의 전통 비평방법인 그의 시의 풍격(風格)

2003.

- 강전섭, 「高杜谷의 <杜谷歌曲>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2, 한국시조학회, 1986.
 성호경, 「杜谷 高應陟의 詩歌 辨正」, 『한국학보』 14, 일지사, 1988.
 조규익, 「杜谷 高應陟의 가곡」,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학회, 1997.
 조규익, 「조선조 道義歌 脈의 一端(1)-周世鵬 高應陟까지」, 『동방학』 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7.
 전재강, 「시조 문학에 나타난 유교 학문과 시적 자아의 성격」,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김상진, 「杜谷 高應陟의 시조에 관한 고찰」, 『시조학논총』 35, 한국시조학회, 2011.
 송재연, 「작시원리를 통해 본 高應陟 道學時調의 문학적 특성」,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2012.
 강전섭, 「高杜谷의 <浩浩歌>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5-6, 개신어문학회, 1988.
 성호경, 「朝鮮前期의 類似時調 研究」, 『인문연구』 17,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9.
 박규홍, 「辨別要素를 통해 본 시조와 가사의 경계」,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이민홍, 「조선조 黨派와 시가문학」, 『한국 민족예악과 시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은필관, 「杜谷 高應陟 시문학의 배경과 시세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3) 이에 대한 연구는 최석기, 「杜谷 高應陟의 大學章句 改訂과 의미」, 『한문학보』 4, 우리한문학회, 2001.가 있다.

이 어떠한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2. 杜谷 詩의 生成 背景

고응척(高應陟, 1531~1605) 자는 숙명(叔明), 호가 두곡(杜谷) 또는 취병(翠屏)이며 본관이 안동(安東)이다. 아버지는 고몽담(高夢聃)이며, 어머니는 정세형(鄭世亨)의 딸이다. 그의 나이 17살 되던 해 영양(英陽) 남씨(南氏) 극문(克文)의 따님에게 장가갔다. 그의 나이 11살 되던 해 그의 부모를 따라 상주(尙州) 구도곡(求道谷)으로 이사하였다. 그의 나이 12살 때 후계(后溪) 김범(金範)을 찾아가 『중용』을 가르쳐 줄 것을 청하였으나 나이가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도자부(道字賦)> 70여구를 지었다.

그의 나이 19살 때인 1549년(명종 4)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심하여 『대학』·『주자혹문(朱子或問)』 등을 읽었다. 상사(上舍) 유제(柳霽)가 당나라 한유(韓愈)의 문장을 읽기를 권하였으나, 성현의 글이 있는데 하필이면 한유의 문장을 배울 것이냐고 거절하였다. 여러 해 동안 『대학』을 탐독하였으며, 끼니까지 거르며 학문에 열중하여 마을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여겼다.

그의 나이 31살 되던 1561년(명종 16)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함흥교수로 부임하였다가, 1563년 사직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을 닦았다. 『대학』의 내용을 시조로 읊어 교훈을 주기도 하였다. 시·부·가(歌)·곡(曲)으로 체계화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시부 이외에 가(歌)와 곡(曲) 등이 있어 국문 시가와 한문시가에 두루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의 나이 41살 되던 1571년(선조 4, 辛未)에 풍기군수·회덕현감(懷德縣監)·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등을 역임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그의 나이 76살 되던 1605년 경주 제독(提督)을 제수 받고 그해 8월 28일 일생을 마쳐 같은 해 11월 11일 고인동(古人洞) 자좌

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이상은 인재(忍齋) 최현(崔暉)의 지은 「두곡선생언행록(杜谷先生言行錄)」⁴⁾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그의 문집인 『두곡집』은 총 6권 5책이다. 이 가운데 제 1권은 부(賦), 제2권은 부(賦)와 시(詩)로 운문이 실려 있다. 제3권은 소(疏)·의(議)·서(書)·잡저(雜著)·전(傳)·설(說)·서(序)·기(記)가 실려 있다. 잡저로 분류된 항에는 변(變)·논(論)·의(擬)·책(策)·문(問)이 들어 있다. 제4권에는 표(表)·전(箋)·격(檄)·제문(祭文)·명(銘)·갈명(碣銘)이, 제5권에는 별집(別集)·도(圖)·가곡(歌曲) 23제 28수가 실려 있다. 별집과 도(圖)에 실려 있는 내용은 철학을 논한 글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권1, 2에 실려 있는 작품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부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율시	오언장편	칠언장편	계
체	58	16	66	27	23	11	6	207체
수	58	16	69	32	26	11	6	218수

형식 207題 218首	제목
부(賦) 58題 58篇	大丈夫，處江湖之遠則憂其君，擬感舊遊，舟中敵國，顏子春生，胸海，宇宙，藏，事，夢覺關，人鬼關，玩索終身用不窮，學莫先於致知，存養，四端，其字，不動心，叩馬，座中皆愕伯淳誰，沼上見孟子，言前定則不跲，南內淒涼，本心如日月，霽月，太虛，怠，善教得民心，龜以靈故焦，立雪，千里之行起於一足，決獄雨，傷弓之鳥高飛，天根，仁聲，丹田，君子之交談若水，五就湯，日觀峯，君山，蘇湖多秀彥，觀天地生氣象，憫旱，哀樂巢燕辭，粉，六有堂，上書憂漢室，鳥獸不可與同羣，五樂，四時嘉與人同，謹獨，空中樓閣，月落萬川愼厥與，讀書

4) 高應陟, 『杜谷集』 卷6.

2019년 1월 서라벌문화재연구원과 구미시 등은 지난 1월 경북 구미시(龜尾市) 해평면(海平面) 안동(安東) 고씨(高氏) 선영에서 묘를 이장하다 두곡의 미라와 시신에 입힌 속의(襲衣)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형식 207題 218首	제목
	萬卷猶有今, 舟中講大學, 與萬物爲一, 字, 賢聖不關門
오언절구 (五言絶句) 16題 16首	有感, 題晦齋集, 示學者, 卽景題南溪書堂, 次張旅軒和李晦齋金眞樂朴龍巖韻, 眞樂堂元韻, 次鄭仁同鑑韻, 戲贈盈德權泰, 溪上偶吟, 渡洛江, 仁智吟, 觀裴龍吉殿策, 天生城下盤石, 題僧軸次康秀才韻寄李延陵好閔, 寄金興海九鼎
칠언절구 (七言絶句) 66제 69수	觀燈, 讀書有感, 縑車, 蜂王, 有感, 三條色, 偶吟, 讀中庸, 融礙字, 草堂, 用春草曲, 有感, 目, 漢祖, 黃裳吟, 針松, 贈調度使, 示學者, 蟠蟀, 呈府尹黃允吉, 黃允吉次韻, 讀中庸, 有感, 憶古遊, 贈柳西厓, 復馬生, 有感, 贈盧醴泉景任, 贈李察訪義貞, 贈崔司馬峴, 寄張佐郎, 道字, 着慕吟, 喜麥, 挽吉士悅, 挽文城主弘道, 別金城主湧, 賀金城主湧再赴, 憶西厓, 晨上前丘, 蠶, 贈張旅軒, 呈金城主穎達, 慰張義城德晦, 贈金興每光輝, 權司諫蓮亭, 贈青松權春蘭, 江上, 贈李鵬溪山海, 甲長山, 明鏡堂, 治隱廟, 送金昌遠弘微, 挽吉生員內子崔氏, 偶吟, 題蒙村, 次退溪韻, 退溪元韻, 杜谷偶吟, 一直洞亭次李佐郎逢春韻, 聞倭奴渡海喜而作, 贈李閭叔, 學莫先於致知, 河陽縣監赴任時, 空中樓閣, 自挽
오언율시 (五言律詩) 27제 32수	呈晉牧壯元崔岵, 崔岵次韻, 重奉, 破閒不妨又疊幸教, 疊和, 戲疊前韻呈道鎖後之戀, 又疊申亶肯訪, 次, 奉別諸君子, 贈孫正字起陽, 漫興, 贈崔季昇赴洛, 贈權秀才克讓, 贈洪教授, 示學者, 讀書有感, 雙柳亭, 贈鄭亞使思愼, 題自醒堂, 贈趙安仲, 挽崔眞寶岵, 有感, 四月哉生魂, 用大學曲, 入德門曲, 憶雙柳, 感舊遊
칠언율시 (七言律詩) 23제 26수	顏邵吟, 嵇琴, 題明遠樓, 自得吟, 次劉總兵絳蚌鵲韻, 贈天將四首, 明死生篇勉武學, 讀易有感, 題風雷堂, 上巡相韓俊謙, 題崔李昇草亭, 次亦樂齋韻, 有感, 壬寅除夜, 癸卯元日, 次松雲韻送日本, 暮春晴景, 贈金江陵弘微, 歎詩, 乙巳正朝, 花潭快活元韻, 次歸來亭韻, 澤山亭記後

형식 207題 218首	제목
오언장편 (五言長篇) 11제 11수	思, 悅, 親, 戚, 之, 情, 話, 自笑, 遣憤, 冷山, 題盧懼仲樂亭
칠언장편 (七言長篇) 6제 6수	胸中長有四時花, 千萬曲, 讀中肥, 三上, 寄申文學之梯, 鐵秦檜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두곡의 시부(詩賦) 작품의 제목의 글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한 글자로 된 제목의 작품은 부에 5수, 칠언절구에 1수, 오언율시에 1수, 오언장편에 7수로 모두 14수이다. 제목이 두 글자로 된 것은 부에 16수, 오언절구에 1수, 칠언절구에 17수, 오언율시에 4수, 칠언율시에 2수, 오언장편에 3수, 칠언장편에 1수로 도합 44수이다. 제목이 한 글자와 두 글자로 된 부와 시는 58수로 전체 시부(詩賦) 수의 약 27%에 해당한다. 제목이 3글자인 시부가 33제 36수이니 218수의 시 가운데 80수, 곧 전체 시부의 1/3 이상이 3글자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인의 성격이 간단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의 제목이 명사로 된 것이 많다. 이는 현재, 이곳, 이것을 강조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정신이 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주변 사람들이다. 시의 제목에 ‘누구에게 부침[寄]’ 또는 ‘아무개에게 줌[贈]’ 자가 붙은 시가 22수이며, ‘아무개를 전송함[送]’이라는 제목의 시가 1수이며, 다른 사람의 시에 차운한 시가 13수이다. 그의 시 33제 36수의 시와 『두곡집』 권6에 실려 있는 만장(挽章)이나 제문(祭文)을 통하여 그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

그가 시를 통하여 교유한 사람은 용암(龍巖) 박운(朴雲),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진락당(眞樂堂) 김취성(金就成), 인동(仁同) 현감 정감(鄭鑑), 영덕

군수 권태일(權泰一), 연릉(延陵) 참봉(參奉) 이호민(李好閔), 흥해(興海) 현감 김구정(金九鼎), 부윤 황윤길(黃允吉),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예천(醴泉) 군수 노경임(盧景任), 잘방 이의정(李義貞), 사마(司馬) 최현(崔暉), 좌랑(佐郎) 장○○,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성주(城主) 김영달(金穎達), 흥해 현감 김광엽(金光燁), 청송(靑松) 부사(府使) 권춘란(權春蘭),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창원(昌原) 현감 김홍미(金弘微), 퇴계(退溪) 이황(李滉) 1, 이은숙(李閭叔), 진주 목사(晉州牧使) 최립(崔翌), 정자(正字) 손기양(孫起陽), 최계승부락(崔季昇赴洛), 수재(秀才) 권극양(權克讓), 교수(教授) 홍○○, 아사(亞使) 정사신(鄭思愼), 조안중(趙安仲), 진보(眞寶) 현감 최립(崔翌), 명나라 장수 ○○○, 강릉(江陵) 부사 김홍미(金弘微) 등이다. 이처럼 두곡 자신이 시를 지어 준 사람은 대부분 지방관으로 중앙의 고관대작들과는 주고받은 시가 없다. 이를 통하여 보면, 그 자신이 수학할 때거나 관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그가 시의 제재로 한 것은 자신 가까이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었다. 자신이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었던 자연 경관이나 사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용어, 자신이 추구하였던 의식을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있어 퇴계 학맥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승관계는 퇴계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의 학문은 선산(善山)과 상주(尙州)로 연결되는 경상도 서북쪽 학맥을 잇는다. 맨 위의 용암 박운이 비록 퇴계와 7차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그가 한 번도 퇴계를 만난 적이 없다. 진락당(眞樂堂) 김취성(金就成)은 용암과 동갑으로 상주의 선비인 후계(后溪) 김범(金範) 밑에서 수학하였다. 용암, 회재, 진락당이 주고받은 시가 『용암집(龍巖集)』⁵⁾에도 실려 있다.

5) 용암 박운의 『龍巖集』 卷1에 용암이 진락당(眞樂堂) 김취성(金就成)의 명경당 시에 송당과 회재가 차운한 것에 그 자신도 차운하여 <김성지의 시운을 따른 송당과 회재 두 선생의 명경당 시에 차운함[明鏡堂 次松堂晦齋兩先生步金成之韻]>이라는 시를 지었다. 성지(成之)는 김취성의 자이다. 김취성의 원시와 박운이 지은 차운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두곡이 생존한 시기는 우리나라 성리학이 절정을 이룬 때여서 그 역시 성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문집 권1, 2의 부(賦)나 시에서뿐만 아니라 권2·4의 산문, 권5의 별집(別集), 도(圖), 가곡(歌曲)에서 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그가 지은 작품에서 보면 유학, 또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시에서도 성리학자들이 즐겨 추구하였던 이치를 묘사하고 있다. 시어에 있어서도 송나라 어록체(語錄體)나 그 뒤의 백화체(白話體)에 나오는 ‘각(却)’, ‘주(倣)’와 같은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 내용면에서도 그의 시는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철리적(哲理的)이며, 묘사적(描寫的)이라기보다는 서술적(敘述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곡의 시를 시에 요소에 맞추어 시의 의미와 자아의 지향의식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3. 시의 要素에서 본 시의 의미

3.1. 잔잔히 울리는 리듬감

두곡의 시를 보면 웅장하거나 요란한 리듬감을 지닌 시어(詩語)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시는 마치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듯 잔잔하다. 먼저 그가 죽기 한 해 전 그의 나이 75살 되던 갑진년(1604)에 지은 <세 가닥의 새끼[三條索]>⁶⁾라

風過無形色 바람이 지나가도 모습이 없나니,
雲行迹亦空 구름 지나가도 자취 또한 없네.
澹然無一事 사심 없어 신경 쓸 일이 없으니,
天地一般功 천지가 모두 같은 공(功)이라네.

용암 박운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源泉流日夜 위서 흐르는 물 밤낮 그치지 않아,
清澈小潭空 물 맑은 작은 못이 비어 있는 듯.
萬象咸來照 온갖 물상이 함께 와서 비추나니,
方知別有功 별다른 공이 있다는 것을 알겠네.

6)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絕句.

는 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三條交貫互爲用 세 가닥 새끼 서로 꿰어서 작용하니,
 除一安能有所生 하나라도 없으면 어찌 살 수 있으리오.
 從知變化三才道 여기에서 삼재가 변화하는 도를 아나니,
 或却吾人亦不成 도리어 우리들은 이 도 알지 못한다네.

세 가닥의 새끼는 동아줄을 만들 때 쓴다. 보통 새끼는 두 가닥이다. 이 세 가닥 새끼는 단순히 새끼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자아가 이 새끼를 통하여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유추하고 있다. 삼재의 본체는 천지인(天地人)이지만, 그 활용은 천인지(天人地)이다. 전구(轉句)에서 세 가닥의 이치가 삼재(三才)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늘 땅 사람이 우주의 본체이고 하늘 사람 땅이 우주의 활용이다. 자아가 이 구절에서 우주의 생성 변화하는 이치가 도(道)라고 하였다. 이는 『주역』에서,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하니, 잇는 것이 선이고 이룬 것이 성이다.”⁷⁾라 하였다. 우주, 곧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운행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서 자아가 옳고 있듯이, 사람이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위태하고 도를 추구하는 마음은 미세하기 때문이다.⁸⁾ 이처럼 이 시에서는 자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道心)을 밝히는 것이다. 다음의 <두 마리 말이 태어남[復馬生]>⁹⁾라는 시에서도 자아가 비유법을 통하여 자신의 지향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廐中能養一雌驥 마구간에 암말 한 마리를 잘 길렀는데,
 夜半驚聞二馬鳴 밤중에 두 마리 울음소리 들려 놀랐네.

7) “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也，成之者性也。”『周易』，『繫辭』上篇。

8) 『書經』，『大禹謨』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세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여 그 중도(中道)를 진실로 잡아야 한다[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는 구절이 있다.

9) 高應陟，『杜谷集』卷2，七言絕句。

可想生生坤牝化 곤괘의 변화에서 생생의 이치 생각나니,
天機奚獨覺驢聲 천기만이 어찌 말울음 소리를 깨닫는고.

앞의 시에서 자아가 삼재의 이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면, 이 시에서는 자아가 음양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주장하고 있다. 기구의 암말[牝馬] 한 마리가 승구에서 두 마리가 되었다. 이는 말[馬]은 양기(陽氣)를 상징한다. 8괘 가운데, 건괘(乾卦)가 뜻하는 것이 말[馬]이다. 이는 곧 태극(太極)을 의미한다. 이 태극이 양의(兩儀), 곧 음양으로 갈라졌다. 건괘, 곧 하늘의 운행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곤괘(坤卦)의 땅의 운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산천초목이 그 형상이다.

자아가 암말에서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생생(生生)의 이치를 생각하였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땅 위에 있는 만상(萬象)에 모두 이 생생의 이치가 적용된다. 이 생생, 곧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치가 바로 도(道)이다. 이 시에서도 자아가 도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주가 운행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아 역시 우주의 운행하는 이치를 조용하면서도 차분히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아 자신도 생생(生生)의 이치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신축년(1601) 그의 나이 72살과 을사년(1605) 그의 나이 76살 사이에 지은 <느낌이 있어[有感]>¹⁰⁾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二世白鷗曾過隙 두 세대 흰 오리 일찍 틈새를 지나니,
萬年天子勸長星 영원한 천자가 장성(長星)을 권한다네.
誰知無逸書中主 누가 무일편(無逸篇) 안의 주인공들이,
能享相傳八百齡 서로 전한 도통 팔백년 누린 줄 알리.

이 시에서는 각 구절마다 핵심어를 사용하여 자아의 지향(志向)을 묘사하고 있다. 용사(用事)를 통하여 우의하고 있다. 기구(起句)에 결구(結句)까지의 핵

10)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絕句.

심어는 흰 오리[白鷗], 장성(長星), 무일(無逸), 팔백령(八百齡)이다. 네 단어를 띄어놓으면 그다지 의미가 없으나 이를 연결시키면 자아가 이 시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기구에서 백구는 기심(機心)을 의미한다. 이 백구 앞에 두 대[二世]라는 관령어가 있다. 두 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두 대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다. 여기서의 의미는 기심(機心)이 있고 없는 것이다. 백구를 사람으로 바꾸면, 기회를 노리는 마음이 없으면 한 자리에 안주한다. 반면 기회를 노리는 마음이 있으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주의자(機會主義者)는 성경(誠敬)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 자신이 유리한 곳에 붙어 다닌다.

승구(承句)의 장성(長星)을 통하여 성경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장성은 혜성(彗星)의 일종이다. 이 별이 병란(兵亂) 등 재앙을 예고한다고 한다. 큰 나라의 천자가 되려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 천자가 앞일을 예견만 하면 나라를 오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구(轉句)에서 자아가 말하고 있듯이, 천자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무일(無逸)’은 『서경』에 들어 있는 편명(篇名)이다. 상고 시대 훌륭한 제왕이었던, 요순(堯舜)·우탕(禹湯)·문무(文武), 주공(周公)까지의 훌륭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이 정사(政事)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자아가 기구에서 전구까지의 결과를 결구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영원히 도를 전승(傳承)할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나라에 도통(道通)이 이어가면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한다. 반면 학자가 그 도맥(道脈)을 계승하면 학통(學統)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시에서 자아가 바라는 핵심어가 ‘무일(無逸)’이다. 이는 자아가 바라는 평소 삶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요순임금이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았듯이, 자아 당대의 임금도 정치에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의 <누에[蠶]>¹¹⁾라는 시는 두곡(杜谷)이 자신이 죽기 3년 전인 임인년

11)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絕句.

(1602) 그의 나이 72살 때 지은 시이다. 이 시의 리듬감 역시 조용하다. 그 내용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過盡三眠各做功 세 잠 다 자고 나 제각기 고치 만들어,
細黃繪白奪天功 노란 벌레 흰 실 짜니 천공을 벗어나.
却慚者歲吾虛過 일흔 해 동안 잘 못 산 것이 부끄러워,
枉做垂黃戴白翁 누런 수염에 머리 센 늙은이가 되었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자아가 누에를 보고 지었다. 이 시의 핵심어는 기구의 각주공(各做功)과 승구의 천공(天功)이다. 각주공은 누에마다 고치를 만드는 공이요, 천공은 저절로 생겨나는 공이다. 자아가 보았을 때 누에가 잠을 잔 뒤 만들어내는 고치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다는 것이다. 기구와 승구는 외물에 대한 묘사요, 전구와 결구는 자아 자신에 대한 묘사이다. 천공보다 뛰어난 누에고치를 보니 학문한답시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아 자신이 부끄럽다. 이는 자아 스스로의 겸손이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른다.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그 의식이 그만큼 남들보다 앞선다. 이처럼 그는 잔잔한 시 속의 리듬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치를 찾고 있다.

3.2. 소슬한 情感의 繪畫性

어느 한시 작품이나 음악성과 회화성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난다. 두곡의 시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나이 일흔 살 되던 해 지은 <낙동강을 건너며[渡洛江]>¹²⁾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快底秋江上 날씨 맑은 가을날이라 강가에는,

12) 高應陟, 『杜谷集』 卷2, 五言絕句.

輕陰起似烟 열은 안개가 연기처럼 끼어있네.
 欲觀奇耦化 음양(陰陽)의 조화 알려 하나니,
 人道浪乘船 인도는 풍랑 속에 배탄 것 같네.

두곡 시 역시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가 시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흥체(興體)로 앞 두 구는 자연 경관을 읊었고, 뒤 두 구는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였다. 곧, 경(景)과 정(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유가의 덕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구와 승구를 보면, 계절이 가을날 아침 아니면 저녁이다. 가을이 되면 안개가 많이 낀다. 그것도 강이나 호수 주변에 더 심하다. 자아가 서 있는 곳이 강가이다. 따라서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는 것이 당연하다. 기구와 승구에서 자아가 묘사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그것도 화려하거나 번잡하지 않다. 차분하면서도 한정한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가을날 강가에 피어오르는 안개를 보면서 자아 자신을 반성한다. 외물의 자연스러움에 자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의 이치는 아득하기만 하다. 자연의 질서정연함에 비하여 인도(人道)는 어지럽기만 하다. 처음부터 정성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에 비하여 인도는 인위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 마치 승구에서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 인도가 혼미하기만 하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미하기만 하다[人心惟危, 道心惟微]라는 『서경』의 말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하고 있다. 그만큼 자아가 도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곧 그의 지향의식은 도덕적 이상주의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천생산성 밑의 반석[天生城下盤石]>¹³⁾이라는 시에서도 화려하거나 웅장한 느낌이 없다.

昨日天城峻 어제 보니 천생산성 높고 높아,
 行行渡朽橋 길 가다보니 썩은 다리 건넜네.

13) 高應陟, 『杜谷集』 卷2, 五言絕句.

今朝川上臥 오늘 아침에 냇가에 누웠으니,
平地孰知高 평지에서 누가 높은 곳을 알리.

이 시는 두곡 자신이 살았던 곳 가까이에 있는 천생산성을 제재로 하였다. 천생산성은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이다. 이 산성의 서쪽에는 불쑥 튀어나온 큰 바위가 있는데 『옥산지(玉山志)』 「천생산성(天生山城)」조에는 이 바위가 밀득암(密得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미덕암(米德巖)이라 부르는데, 이는 쌀의 덕을 보았다는 전설에 따른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는 데 지친 왜군이 계락을 써서 산기슭에 우물을 파 산안의 물을 마르게 하자 꼭재우는 미덕암 바위 위에 백마를 세우고 말 등에 쌀을 부으며 말을 씻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 모습이 마치 물로 말을 씻는 것으로 보여 산성에 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 왜군이 공격을 단념하고 물러갔다는 전설이다.

천생산성이지만 그 경관이 가파르거나 웅장하지 않다. 현재 자아가 천생산에 꼭대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천생산성은 그가 어제 다녀왔다. 천생산성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썩은 다리를 건넜다. 그가 또 험한 산성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가 그 밑에서 묵었다. 그가 묵은 곳이 널따란 바위, 곧 밀득암 또는 미덕암이다. 이 바위 가로 시냇물이 흐른다. 산성과 산 밑의 바위, 시냇물이 자연스레 조화한다. 이러한 조화를 자아가 이제 깨달았다. 산 아래에서 사방이 막혀 있어 두루 볼 수 없다. 사방을 두루 볼 수 있는 안목이라야 식견이 넓어진다. 자아가 자연과 서로 교감하고 있다. 그가 자연의 진리를 인간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의 지향의식이 천인합일(天人合一) 또는 인내천(人乃天)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음의 <등불을 보고[觀燈]>¹⁴⁾라는 시에도 외물을 통하여 자아 자신 진리를 깨닫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14)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絕句.

一點心綿隔紫紵 한 점의 숨 심지 붉은 거룻배에 막혀서,
 光輝四散入秋毫 불빛 사방으로 흩어지고 조금 들어오네.
 問渠那得明如許 묻노니 어찌 하여 이리 환하게 밝은고,
 爲有盃中潤玉膏 잔속에 옥 같은 기름이 있기 때문이라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등잔불이 방을 비추는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등불이 외부의 장애물인 자도(紫紵)에 막혀 그 불빛이 새어나온다. 방안의 등잔불, 어두컴컴한 방, 방 안에 있는 자아, 이러한 장면에서 시골 선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 장면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다. 한적하면서도 소슬하다.

이 시는 송나라 주희(朱熹)의 <글을 읽다가 느낌이 있어[觀書有感]>¹⁵⁾ 시를 단장취의하고 있다. 기구와 승구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의 전개 방법은 주자의 시와 같다. 전구에서는 주자의 시 전구에서 글자 한 자만 바꾸었다. 결구에서는 두 글자만 주자의 시와 같지만 그 묘사와 의미 도출 방법이 같다.

자아가 등잔불을 보고 읊었다면 자아는 책을 보다가 읊었다. 자아가 묘사한 등잔불이나 주자가 읊은 연못은 자신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본뜻이 아니다. 이들이 드러내고자 한 뜻은 다른데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 등잔에 불이 붙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밝히려면 책이 있어야 한다. 자아가 우의(寓意)를 통하여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주희 위의 시를 두고 도통시라 하듯이 자아의 이 시도 도통시라 할만하다. 그의 <물레[纜車]>¹⁶⁾라는 시도 겉으로 보면 단순히 물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뜻은 그렇지 않다. 먼저 시의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5) 주자의 <관서유감> 시의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半畝方塘一鑑開 조그만 연못에 한 거울이 열려,
 天光雲影共徘徊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내비치네.
 問渠那得清如許 묻노니 어찌 하여 그리 맑은지,
 爲有源頭活水來 원두에서 활수가 내려오기 때문. (『朱子大全』 卷2)

16) 高應步, 『杜谷集』 卷2, 七言絕句.

八角輪迴一貫中 여덟 모 수레 도는데 한 오리 가운데 껴,
鐵頭絲緒出無窮 쇠머리에서 실오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네.
從知萬化生生者 이로부터 나고 나는 만물의 변화 아나니,
都自乾坤不息功 모두가 건곤(乾坤)이 쉬지 않는 공이라네.

기구에서는 자아가 물레와 물레에 긴 실오리를 묘사하고 있다. 승구에서는 물레가 돌아가면서 실오리가 계속 나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두 구에서 자아가 한 아낙이 마루에 앉아 물레를 갖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물레를 돌리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다. 남자가 물레를 갖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물레를 갖지 않았다. 물레와 물레에서 나오는 실오리, 물레를 갖는 아낙을 생각하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것도 소박한 그림이다.

이러한 소박한 장면에서 자아가 유추하고 있다. 자아가 물레를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쉬지 않는 공, 곧 정성(精誠) 또는 성실(誠實)이다. 자아가 그 주변에 흔히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다. 이는 그만큼 자아의 의식이 깨어 있다는 말이다. 그가 지극한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끼자루를 다듬는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도가 통할 수 있다. 자신의 지향의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아의 지향은 언제나 진리, 또는 도를 깨닫는 데 있었다.

3.3. 차분한 雰圍氣와 情調

두곡의 시에는 흥분하거나 분위기가 들뜨지 않았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자아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그의 시 가운데 <시냇가에서 우연히 읊음[溪上偶吟]>¹⁷⁾이라는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7) 高應陟, 『杜谷集』 卷2, 五言絕句.

耳醒聞澗水 귀는 깨어 시냇물 소리 듣고,
 眸豁對青山 시야 트여 푸른 산 마주하네.
 只爲彈丸腹 다만 타고난 그릇이 작은데,
 霜眉醉夢間 눈썹은 꿈에 취한 사이 세네.

이 시의 원주(原註)에 현감으로 재직할 때[宰依縣時] 지었다고 한다. 이 시를 지은 때가 신미년(1571)이니 두곡의 나이 41살 되던 해이다. 이 때 그가 회덕(懷德)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였다. 이 해에 그는 풍기 군수(豐基郡守)·회덕 현감(懷德縣監)·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등을 역임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를 보면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자아가 자신의 귀에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는 푸른 산이 보인다고 하였다. 산이 있고 그 산 위에서부터 냇물이 흐르는 냇가에 자아가 있다. 이 두 구절로는 자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를 지었을 때 자아가 회덕 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자아, 곧 시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가 있었던 곳이 바로 충청도(忠淸道) 회덕(懷德)이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이다. 백제시대에는 그 이름이 우술군(雨述郡) 또는 오천군(朽淺郡)이었고, 신라 경덕왕 때에는 비풍군(比豐郡)으로 고쳤다. 이곳은 유명한 계룡산(雞龍山)과 가까운 곳이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자아가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 현상을 듣고 볼 뿐이다. 냇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반대로 산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고 산은 어진 이를 뜻한다. 따라서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 하게 된다.

전구에서는 자아 자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자아 스스로 자신이 타고난 그릇, 곧 국량(局量)이 작다고 한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넓이가 작는지 크지도 모른다. 겉으로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정신적 수준이 높은 위치에 있다. 이 시의 자아 역시 정신적으로 고차원의 경지에 있다.

겸양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그릇이 작다고 하였다.

결구를 보면, 자아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아 자신도 늙었다고 한다. 40년의 삶이 꿈처럼 지나가 벌써 눈썹이 세었다. 40은 불혹의 나이이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아가 시냇가에 앉아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자아와 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 이러한 때 그 분위기가 들뜰 리 없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분위기가 차분하면서도 냉정하다. 다음의 <인과 지를 읊음[仁智吟]>¹⁸⁾에서는 자연과 자아가 동화하고 있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安土仁能愛 땅에 안정하면 어진 이가 사랑하고,
樂天智不憂 하늘 즐기면 지혜로운 이 근심 없어.
韋編三絕味 가죽 끈 세 번 끊기도록 음미하니,
肯向寂中求 고요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는다네.

이 시에서는 자아가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진리를 차분히 묘사하고 있다. 이 시 안에는 『주역』의 이치를 담고 있다.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는 쌍의대(雙擬對)를 이루고 있다. 안토(安土)와 낙천(樂天), 인(仁)과 지(智), 능(能)과 불(不), 애(愛)와 우(憂)가 서로 대(對)가 된다. 어진 사람은 안토(安土)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낙천(樂天)한다. 안토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낙천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두 구는 각각 조건절(條件節)로 이루어졌다. 앞의 단어, 안토와 낙천이 원인이라면 뒤의 단어들은 그 결과이다,

한편, 기구는 곤괘(坤卦), 승구는 건괘(乾卦)를 암시하고 있다. 토(土)는 땅[地]이요, 천(天)은 하늘이다. 땅[地]는 곤괘(坤卦)요, 하늘[天]은 건괘(乾卦)이다. 곤괘와 건괘가 합치면 지천(地天) 태괘(泰卦)가 된다. 땅이 삼라만상(參羅

18) 高應陟, 『杜谷集』 卷2, 五言絕句.

萬像)을 다 신고 있으며, 하늘 역시 이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있다. 땅의 미덕은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그 덕이 바르고[至靜而德方], 하늘의 미덕은 모두를 융합하여 지극히 화평[保合大和]하다. 태(泰)는 편안하다는 뜻이다. 『주역』 64괘 가운데 13번째 괘가 태괘(泰卦)¹⁹⁾이다. 이 태괘의 미덕이 자아의 지향점이다.

그의 <우연히 읊음[偶吟]>²⁰⁾이라는 시에서도 그 분위기가 들뜨거나 시끄럽지 않다. 곧, 분위기가 조용하면서도 차분히 내려앉았다.

吹燈爲殺炭爲生 등불을 불어 끄니 그을음 생겨나서,
 天地陰陽此亦求 천지와 음양의 이치 여기에서 찾네.
 同是口中風自出 이처럼 입 안에 바람 저절로 나와,
 如何生殺判春秋 어찌 나고 죽음이 나이로 판단하리.

자아가 밤에 방 안에 있다. 방은 외부와 통하지 않는다. 밤 역시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는 때이다. 밤이 되어 자아가 방안에 등불을 켜다가 끄니 그을음이 일어난다. 등불이 양기라면 그을음은 음기이다. 등잔불은 밝지만 그을음은 어둡다. 밝음은 생동, 진보, 발전, 희망, 등의 이미지를 지닌다. 반대로 어두움은 정지, 퇴보, 쇠퇴, 절망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밝음과 어두움에서 자아가 음양의 이치를 터득하였다.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등잔불 안에 진리, 곧 음양의 이치가 들어 있다.

진구와 결구에서 보면, 입 안에 바람이 절로 나온다고 하였다. 입 안에 바람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불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입에서 바람이 안 나오면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가 등잔불에서 생긴 그을음에서 음양의 이치를 깨달았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어두워지니 나타났다. 이는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에 맞추는 것과 같다. 도끼자루를 다듬는 방법은 그 이치가 멀리 있지 않다. 도끼에 도끼자루가 맞도록 하면 된다. 진리가

19) 泰卦의 卦辭를 보면, “태는 소[陰]가 가고 대[陽]가 오니, 길하여 형통하다[泰小往大來吉].”이라는 말이 있다.

20)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絕句.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이 그 진리를 멀리할 뿐이다. 등불을 켜면 양기(陽氣)가 생긴다. 양기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등불을 끄면 양기가 사라지고 음기가 생긴다. 이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이 목숨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사람의 몸에서 양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이 쉽게 죽은 것을 쥔볼 가듯이 간다고도 한다. 이 시는 분위가가 차분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이치를 담고 있다. 곧,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아의 지향의식이다. 다음의 <환성당박연을 애도함[挽喚醒堂朴演]>²¹⁾이라는 시에서도 그 분위가가 차분하다.

喚醒堂前孰喚醒 환성당 앞서서 누가 불러 일깨웠나,
明鏡軒中鏡賦明 명경헌 안에서 거울이 다시 밝았네.
借使禿盡中山兔 중산의 토끼가 붓으로 다 닳아서도,
難書多少馬鬣情 쌓인 정에 만사 짓기 어렵기도 하네.

환성당(喚聲堂)은 두곡(杜谷)과 같은 고향인 선산부(善山府) 해평(海平) 출신인 박연(朴演, 1529~1591)을 가리킨다. 환성당은 박연의 호이다. 박연은 일선십현(一善十賢) 가운데 한 사람인 용암(龍巖) 박운(朴雲, 1493~1562)의 둘째 아들이다. 그가 해평현(海平縣) 고리실[古里谷: 槐谷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호가 환성당이다. 위 시의 기구(起句)와 승구(承句)에서 자아가 이러한 정황을 읊고 있다. 승구의 명경헌은 용암 박운이 거처했던 명경당(明鏡堂)을 가리킨다. 흐트러진 마음을 불러 일깨운다[喚醒]라는 말은 송나라 정민정(程敏政)의 『심경부주』²²⁾에 나온다. 이 환성은 성성(惺惺)이라는 말과 같다. 명경이나 환성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그 분위가가 들뜨거나 시끄럽지 않다. 맑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21) 高應陟, 『杜谷集』 卷2, 拾遺.

22) 程敏政, 『心經附註』, 「敬以直內」·「仁人心章」·「魚我所欲」章. 환성당 박연의 아버지인 용암 박운은 심학에 심취하였다. 그가 엮은 「擊蒙編」, 「紫陽心學至論」, 「隨事雜錄」(『龍巖集』 卷3) 등의 핵심어는 모두 마음[心]이다.

이 시가 죽은 박연을 애도하는 시이기에 차분하면서 엄숙할 수밖에 없다. 전구(轉句)의 중산(中山)의 토끼는 자아가 용사(用事)하고 있다. 곧, 당나라 시인인 이백(李白)의 <초서가행(草書歌行)>이라는 시에, “먹물로 이뤄진 못에는 북명의 물고기가 튀어나올 듯하고, 붓털이 하도 닳아서 중산의 토끼 모두 잡아 올 정도였네[墨池飛出北溟魚, 筆鋒殺盡中山兔].”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는 자아가 박연이 학문에 심취하였다는 것을 용사(用事)를 통하여 칭찬하고 있다. 전구의 핵심어가 중산토(中山兔)라면, 결구의 핵심어는 마렵정(馬鬣情)이다. 중산토가 상대방인 박연을 칭찬한 말이다. 마렵정은 자아가 죽은 박연의 만사를 짓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아와 박연 사이가 친밀하기 때문이다. 마렵(馬鬣), 또는 마렵봉(馬鬣封)은 무덤을 뜻한다.

짧은 7언 절구 시이지만, 그 안에 자아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묘사하고 있다. 곧, 환성당 박연과 그의 아버지 박운(朴雲)의 학문의 방향이다. 이 시의 핵심어는 명경(明鏡)과 환성(喚醒)이다. 이 두 단어의 주체는 다름 아닌 마음[心]이다. 이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환성이요, 마음이 맑게 깨어 있는 것이 명경이다. 『주역』에는 군자가 경(敬)으로 마음을 바르게 한다²³⁾ 하였다. 송나라 주희(朱熹)는, “경이란 마음을 한곳에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²⁴⁾ 하였고, 사랑좌(謝良佐)는 “경이란 마음이 항상 또렷이 깨어있게 하는 법이다.”²⁵⁾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마음수양공부를 말한다. 환성이라는 말도 항상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환성당 박연의 아버지인 용암 박운이 심학에 몰두하였다. 박운의 문집인 『용암집(龍巖集)』을 보면 심학에 대한 글이 많이 있다. 특히 「격몽편(擊蒙編)」, 「자양심학지론(紫陽心學至論)」, 「수사잡록(隨事雜錄)」 등은 송나라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심학에 대한 글을 발췌하여 다시 편집한 글이다. 위 시에서도 자아 역시 이 심학(心學)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의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²⁶⁾이

23) “君子，敬以直內。”『周易』，坤卦，「文言」六二。

24) “敬者，主一無適之謂。”『논어』，「學而」편의 ‘敬事而信’에 대한 朱熹의 集註。

25) “敬是常惺惺法。”程敏政，『心經附註』卷1。

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月到梧桐上 달은 오동나무 위에 떠오르고,
 風來楊柳邊 바람 버드나무 가에 불어오네.
 院深人復靜 깊숙한 정원에 인적 고요하니,
 此景與誰言 이런 경치 누구에게 말하리오.

이 시는 결구(結句)의 한 글자를 제외하면 북송(北宋)의 학자 소옹(邵雍, 1011~1077)의 <달이 오동나무 위에 걸려 읊음[月到梧桐上吟]>²⁷⁾이라는 시와 똑같다. 소옹의 시에는 결구의 ‘여(與)’자가 ‘공(共)’자로 되어 있다. 이 시의 주제가 달인 것을 보면 두곡이 소옹(邵雍)의 시에서 그 뜻을 따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은 눈·입·귀·몸·마음[目口耳身心]을 통하여 얻는 즐거움이다. 이는 자아가 자연 속에서 찾은 즐거움이다. 오동나무 위로 떠오르는 달, 버드나무 가지에 불어오는 바람, 인적이 없는 고요한 정원을 통하여 느끼는 즐거움이다. 이 말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말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의 다섯 벗[五友]²⁸⁾을 연상하게 한다. 이 즐거움은 또 다섯 가지 음악과도 통한다. 조선 후기의 윤훤(尹鉉, 1617~1680)은, “음악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봄에는 거문고와 큰 거문고, 여름에는 생황과 피리, 늦여름에는 북, 가을에는 쇠북, 겨울에는 경쇠이다.”²⁹⁾라 하고 있다.

위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그의 주위에 있다. 그 대상이 화려하거나 사치(奢侈)하지 않다. 고요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자연물이다. 자아가 비록 부귀하지는 않지만, 그 혼자만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

26) 高應陟, 『杜谷集』 卷2, 拾遺.

27) 邵雍, 『擊壤集』 卷12.

28)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라는 시조에서, “내 벗이 몇이라 하니 水石과 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리.”라 읊고 있다.

29) 尹鉉, 『白湖全書』 卷38, 雜著, 「孝經章句考異序」.

긴다. 곧, 독락(獨樂)이요,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지향 의식이다.

3.4. 冲淡하면서 蕭散한 風格

두곡 시의 풍격(風格)을 한마디로 하면 충담(冲淡)³⁰⁾, 소산(蕭散)하다 하겠다. 소산(蕭散)은 소야(疎野)³¹⁾와 통한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들의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풍격이 충담(冲淡)·소산(蕭散)·전아(典雅)이다. 두곡 시의 풍격도 이 범주에 머물고 있다. 먼저 그가 죽던 해인 을사년(1605)에 지은 <귀뚜라

30) 당나라司空圖는 그의 『24詩品』의 두 번째에서 冲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素處以默 잠자코 소박하게 살아가나니,
妙機其微 오묘한 기틀이 은미하다네.
飲之太和 조화로운 기운 들어 마시고,
獨鶴與飛 외로운 학과 함께 날아다네.
猶之惠風 마치 삼월 따뜻한 봄바람이,
荏苒在衣 옷깃을 스치는 것과 같다네.
閱音修篁 긴 통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美曰載歸 좋아 신고 돌아가겠다 하네.
遇之匪深 그것을 만나면 깊지 않으나,
卽之愈希 다가서면 더욱 희미해지네.
脫有形似 혹 형상이 비슷하다고 해도,
握手已違 손으로 잡으면 이미 어긋나. (詹幼馨, 『司空圖「詩品」衍釋』, 臺灣: 仁愛書局出版社, 1985. 9. 12쪽)

31) 역시 사공도의 『24시품』 15번째 疎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有性所宅 본성이 머무는 곳에 따라서,
眞取不羈 친진하게 취해 매이지 않아.
控物自富 물욕 벗어나 스스로 부유해,
與率爲期 솔직한 마음 가지려 한다네.
築室松下 소나무 아래에 집을 지어서,
脫帽看詩 모자 벗어놓고 시를 본다네.
但知旦暮 해가 뜨고 지는 것만 알 뿐,
不辨何時 몇 시인가 가리지 않는다네.
徇然適意 어찌다 기분 좋아지긴 하나,
其必有爲 반드시 그렇게 되려 하리요.
若其天放 만약 천성 가는대로 놔두어,
如是得之 이렇게 하여야 얻게 되리라. (詹幼馨, 위의 책, 54쪽)

미[蟋蟀]>³²⁾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徹夜催機若有情 밤새도록 베를 짜니 사정이 있는 듯해,
爲何停止爲何鳴 어떻게 하면 그치고 어떻게 하면 우나.
從知耗氣窮思處 아노니 기운을 빼는 것은 끝없는 생각,
不似寒蛩順序聲 귀뚜라미 절서 따라 우는 것만 못하네.

위 시의 기구를 보면 귀뚜라미를 울음소리를 베자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가을에 운다. 『시경』에도 <실술(蟋蟀)>장이 있다. “귀뚜라미 소리 집안에서 들리니, 한해가 이미 저물어가는구나[蟋蟀在堂, 歲聿其莫].”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귀뚜라미가 울면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느낀다. 귀뚜라미 소리는 그다지 시끄럽지 않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우는 것은 모두 사정이 있다. 그 사정을 크게 나누면 기쁘거나 슬픈 것이다.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은 기쁘거나 슬프지 않고 쓸쓸하기만 하다. 충담(冲淡)하면서 소산(蕭散)하다. 승구의 울음을 그치고 우는 것도 그 원인이 있다. 울거나 울음을 그치는 원인을 알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아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 다만 그 스스로 반문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전구와 결구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 있다. 사람은 부질없는 줄도 모르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진다. 하룻밤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며 번민한다. 이 번민이 실제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나친 생각은 건강을 해친다. 이는 때맞추어 귀뚜라미가 우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때가 맞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자아가 이미 알고 있다.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가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곧 시의 풍격이 충담(冲淡)하다고 하겠다. 다음의 <느낌이 있어[有感]>³³⁾라는 시도 충담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2)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絶句.

33)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絶句.

桂上俳優足向天 과거 급제한 사람 대궐 향하여 가나니,
 閭閻奔走望爭先 시골 사람 분주히 그를 보러 앞 다뒀.
 耕夫織女無人訪 농부와 베 짜는 아낙 찾는 이 없는데,
 誰識鳶魚各自然 누가 연비어약이 자연 이치인 줄 알리.

이 시의 제목 앞에 ‘계갑년간(癸甲年間)’이라는 말이 있다. 이 시를 지은 시기가 ‘계갑(癸甲)’의 천간(天干)이 들어간 때 지었다는 말이다. 계갑은 그가 죽기 1,2년 전인 계묘(癸卯: 1603)·갑진(甲辰: 1604)년이다.

기구와 승구에서 자아가 외물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외물을 사물이 아닌 사람이다. 기구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고, 승구에서는 이 사람을 보러 나온 구경꾼들이다. 이 길으로 드러난 광경은 분주하기만 하다. 사람들 대부분이 부귀(富貴)한 것을 삶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부러워한다. 자아는 이 무리와는 다르다. 그에겐 부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농부 아낙들이 일상 생활 하듯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 그의 지향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연비어천(鳶飛於天) 어약우연(魚躍于淵)이다. 이처럼 외물이 어쨌든 간에 자아가 담담히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새벽에 앞 언덕에 올라[晨上前丘]>³⁴⁾라는 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雲落千山雨快晴 온 산에는 구름 끼었으나 비 개었는데,
 清晨露重草爭榮 맑은 새벽 풀에 맺힌 이슬 반짝거리네.
 傍人莫笑蓬間坐 옆 사람 웃지 마오 다복쑥 틈에 앉아,
 默會乾坤萬物生 말없이 우주만물이 나는 이치 깨달았네.

위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배경을 알 수 있다. 시간 배경은 이른 아침이요, 공간 배경은 산 밑이다. 자아가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산에 구름

34) 高應陟, 『杜谷集』 卷2, 七言絕句.

이 끼었다. 비가 오려고 낀 구름이 아니라 비가 그친 뒤의 구름이다. 비가 오기 전에 낀 구름은 그 색깔이 짙지만, 비온 뒤의 구름은 색깔이 흰빛이다. 이른 아침 비가 온 뒤 풀에 맺힌 이슬이 반짝인다. 기구와 승구에서 자아가 처한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전구와 결구에서는 자아 마음속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전구에는 한시작법에 맞게 그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경치묘사에서 자아 자신의 정회를 묘사하기 위한 상황 전환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다복쑤이 틈에 앉아 있는 것을 비웃지 말라고 하였다. 그가 쑤발에 앉아 있는 것이 할 일 없어서가 아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서 우주만물의 생생(生生)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 이처럼 이 시도 위 시와 마찬가지로 자아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다. 시의 결구(結句)면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그 내용 면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두곡의 시는 충담(冲淡)하면서 소산(蕭散)한 풍격을 지닌 시가 대부분이다. 그의 시 풍격이 충담·소산한 것은 그의 삶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삶이 충담·소산한 것은 그의 지향의식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첫째 그가 일찍부터 자신이 경술(經術)을 공부하였고, 둘째 그의 삶도 부귀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으며, 셋째 그가 한 학문이 경학(經學)과 성리학(性理學)이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본고는 한평생 학문을 살다간 두곡 고응척(高應陟, 1531~1605)의 한시에 시의 요소(要素)를 중심으로 그의 시의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두곡이 살았던 시기는 우리나라 성리학이 가장 왕성할 때였다. 그의 학풍은 경상북도 서북쪽의 지방의 학맥을 잇는다. 곧 그가 태어난 선산과 이사하여 살

있던 상주(尙州) 지역의 학맥과 통한다. 한 예로 그가 12살 되던 해 상주의 선비인 후계(后溪) 김범(金範)을 찾아가 『중용』을 배우기를 청하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읽은 책은 경서(經書)나 성리서(性理書)였다. 그의 나이 19살 때인 1549년(명종 4)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고향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여 『대학』·『주자혹문(朱子或問)』 등을 읽었던 사실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두곡 시의 형식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시부(詩賦) 제목의 글자수가 적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 1/3 이상의 제목이 3글자 이하이다. 이를 통하여 시인의 성격이 간단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 제목은 명사로 된 것이 많다. 이는 그가 살았던 시기가 성리학 전성기였지만, 그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현재, 이곳, 이것이 핵심이 되는 실학정신을 겸하고 있다.

둘째 시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주변 사람들이다. 두곡 자신이 시를 지어 준 사람은 대부분 지방관으로 중앙의 고관대작들과는 주고받은 시가 없다. 이를 통하여 보면, 그 자신이 수학할 때거나 관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그가 시의 제재로 한 것은 자신 가까이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었다. 자신이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었던 자연 경관이나 사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용어, 자신이 추구하였던 의식을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가 생존한 시기는 우리나라 성리학이 절정을 이룬 때여서 그 역시 성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문집 권1,2의 부(賦)나 시에서만뿐만 아니라 권2·4의 산문, 권5의 별집(別集), 도(圖), 가곡(歌曲)에서 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그가 지은 작품에서 보면 유학, 또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시에서도 성리학자들이 즐겨 추구하였던 이치를 묘사하고 있다. 시어에 있어서도 송나라 어록체(語錄體)나 그 뒤의 백화체(白話體)에 나오는 ‘각(却)’, ‘주(做)’와 같은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 내용면에서도 그의 시는 문학적이거나 철리적(哲理的)이며, 묘사적(描寫的)이라기보다는 서술적(敘述的)이다.

시의 요소를 통하여 본 그의 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잔잔히 울리는 리듬감이다. 그의 시를 보면 웅장하거나 요란한 리듬감을 지닌 시어(詩語)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시는 마치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듯 잔잔하다. 이는 그가 조용한 삶을 지향하였다는 증거이다. 둘째 소슬한 정감의 회화성(繪畵性)이다. 그의 시는 차분하여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그가 우주의 생생(生生)의 이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임금이 요순임금처럼 왕도정치를 베풀 것을 바라고 있다. 그의 지향의식이 도덕적 이상주의에 있었다. 셋째 차분한 분위기와 정조이다. 그의 시에는 흥분하거나 분위기가 들뜨지 않았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시에 나타난 대상이 화려하거나 사치(奢侈)하지 않다. 그 대상은 고요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자연물이다. 그가 비록 부귀하지는 않지만, 그 혼자만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넷째 그의 시의 풍격은 충담(沖淡), 소산(蕭散)하다. 이는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외물의 변화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리학자들의 모습이 그의 시에 나타난다. 그것은 그가 일찍부터 자신이 경술(經術)을 공부하였고, 둘째 그의 삶도 부귀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으며, 그가 한 학문이 경학(經學)과 성리학(性理學)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두곡의 작품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賦)나 곡(曲)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高應陟, 『杜谷集』(木板本).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4.

詹幼馨, 『司空圖「詩品」衍釋』, 臺灣: 仁愛書局出版社, 中華民國74年. 9月.

이상보, 「高應陟의 <陶山歌>」,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정재호, 「임진왜란과 국문시가」,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강전섭, 「高杜谷의 <陶山歌>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 한국언어문학회, 1966.

강전섭, 「高杜谷의 <陶山歌> 복원에 대하여」, 『어문학』 23, 한국어문학회, 1970.

정익섭, 「16·17세기의 가사문학」,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류해춘, 「임진왜란의 체험과 가사문학의 변모」,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UCI : G704-001473.2004..17.015)

박구홍, 「杜谷時調考」, 『시조문학연구』 2, 영남시조문학연구회, 1983. 9.

이영희, 「조선조 嶺南士林派 詩歌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10.

고정희, 「17세기 시조 연구의 쟁점과 그 방법론적 성격」, 『국문학연구』 10, 국문학회, 2003.

강전섭, 「高杜谷의 <杜谷歌曲>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2, 한국시조학회, 1986.

성호경, 「杜谷 高應陟의 詩歌 辨正」, 『한국학보』 14, 일지사, 1988.

조규익, 「杜谷 高應陟의 가곡」,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학회, 1997.

조규익, 「조선조 道義歌 脈의 一端(1)-周世鵬~高應陟까지」, 『동방학』 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7.

전재강, 「시조 문학에 나타난 유교 학문과 시적 자아의 성격」,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UCI : G704-000112.2006..93.016)

김상진, 「杜谷 高應陟의 시조에 관한 고찰」, 『시조학논총』 35, 한국시조학회, 2011.

(UCI : G704-001211.2011..35.002)

- 송재연, 「작시원리를 통해 본 高應陟 道學時調의 文學적 特性」,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2012.
(UCI : G704-000112.2012..116.003)
- 강전섭, 「高杜谷의 <浩浩歌>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5-6, 개신어문학회, 1988.
- 성호경, 「朝鮮前期의 類似時調 研究」, 『인문연구』 17,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9.
- 박규홍, 「辨別要素를 통해 본 시조와 가사의 경계」,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UCI : G704-001066.2007..51.009)
- 이민홍, 「조선조 黨派과 시가문학」, 『한국 민족예악과 시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은필관, 「杜谷 高應陟 시문학의 배경과 시세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석기, 「杜谷 高應陟의 大學章句 改訂과 의미」, 『한문학보』 4, 우리한문학회, 2001.

| Abstract |

A study on main features and the meaning of EungCheuk Go's poetry

Lee, Ku-eui

Kyungpook Univ. Prof.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ungCheuk Go's(1531 ~1605) poetry, who dedicated his life to studying by focusing on poetry elements reflected in his poetry. DuGok lived in a period when Neo-Confucianism flourished. His poetic style follows the academic circles of the Northwest part of Gyeongsang Province. This means that his poetic style resembles Seonsan and Sangju style, where his family was locate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his poetry are following; First, the titles of his poetry are relatively short. More than one-third of his poetry titles have less than three letters. Throughout this, it can be seen that he had a simple personality. Furthermore, he did not only practice Neo-Confucius school of thought but also the empirical school of thought. Second, DuGok mainly exchanged his poetry with people who surrounded him. He wrote the majority of his poetry during his studies and while he was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Third, he got ideas from objects or people around him. Dugok's poetry mainly depicts nature, objects that he could easily contact. Also, terminologies he considered during his studies and

reflects the consciousness he pursued. Fourth, his poems used words from Song Dynasty's acrostic style and an informal style or a conversational style. Regarding the contents of his poems, they are philosophical rather than literary, and descriptive rather than depictive.

Throughout an analysis of poetic elements in Dugok's poetry,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etry are: First, his poetry has gentle rhythm. He did not use either magnificent or rhythmical words in his poems. Second, looking at his poetry makes elements of paintings. His poems are calm therefore it is like looking at a piece of oriental painting. Third, his poetry has a calm vibe and tone. His poems neither seem to be excited nor thrilled. The atmosphere reflected in his poems is calm and tranquil. Fourth, his poetic styles are calm and fit to tradition or laws at that time. This indicates that he was not an emotional but rational person. The styles show a fortitudinous attitude of Neo-Confucianism disciples in continuous external changes. Ultimately, his intention was to pursue the morality.

Key words : philosophical, depictive, rhythm, elements of paintings, The atmosphere, rational.

